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의 본질과 그 파생방법

러 동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한문교육방법도 연구하며 한문의 고유한 언어적규범도 연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어종의 언어를 막론하고 단어는 하나의 뜻만 가지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뜻을 나타내는 다의성을 가진다.

한문의 한자도 단어인것만큼 다의성을 가지고있다.

한자의 다의적현상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의 본질과 그 호상관계문제를 밝혀야 알수 있다.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의 본질과 그 파생방법을 밝히는것은 한자의 다의적현상을 해명하고 한문의 품사와 한문문장속에서 단어들의 품사전성현상을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여기서는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의 본질과 그 파생방법 그리고 본의와 파생의의 호상관계를 밝히는데서 류의하여야 할 몇가지 문제점을 론의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의 본질을 해명하기로 한다.

우선 한자의 본의는 한자 본래의 뜻이다. 다시말하여 한자가 생겨날 때 그에 붙여놓은 이름이 본의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전해지고있는 한자가 다 원래의 본의가 아니다.

한자의 본의는 한자의 글자모양 즉 한자의 형태구조와의 관계속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그것은 한자가 표의문자이기때문이다.

일정한 뜻, 개념을 나타내는 표의문자인 한자는 뜻과 글자모양이 서로 밀접히 련관

되어있다.

한자의 형태구조를 이루는 글자모양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하나는 표음성분을 가지지 않고 순수 뜻만을 나타내는 상형, 지사, 회의한자들의 모양이며 다른 하나는 표음성분을 가지고 있는 형성한자의 모양이다.

상형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한자인것으로 하여 그 본의가 명백하게 안겨온다.

실례로 한자 斤은 낫과 자루가 달린 도끼를 형상한 글자로서 《나무찍는 도끼》라는 뜻이 바로 한자 斤의 본의이다. 이것이 본의라는것은 《맹자》에 나오는 《斧斤以時入山林》의 문장에 쓰인 한자 斤이 《도끼》라는 뜻을 나타내는것을 통해서도 실증하여준다.

한자 手는 다섯손가락을 편 모양을 형상한 글자로서 《손》이라는 뜻이 한자 手の 본의이다. 이것이 본의라는것은 《許生擇手曰》의 문장이나 단어 手足에 쓰인 한자 手が 《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것을 통해서도 실증하여준다.

상형한자의 세부적특성을 일정한 부호로 지적해주는 방법으로 만든 지사한자도 그 본의가 명백하게 안겨온다.

실례로 한자 刃은 상형한자 刀자의 한부분에 점을 찍어 그것이 바로 《칼날》이라고 지적한것만큼 《칼날》이 바로 한자 刃의 본의이다.

이것이 본의라는것은 《雖死鋒刃下當不爲降虜》와 같은 문장에 쓰인 한자 刃이 《칼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것을 통해서도 실증하여준다.

한자 寸은 상형한자 手자의 손목의 동맥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곳이 팔목에서 맥을 짚는 자리까지의 거리를 지적해주는

의미로 《마디》라는 뜻이 이 한자의 본의로 된다. 이것이 본의라는것은 《割肉出丸深入數寸》의 문장에 쓰인 한자 寸이 《마디》라는 뜻을 나타내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두개이상의 상형자들로 이루어지고 그것들의 뜻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회의한자는 일반적으로 한자의 총체적모양이 그 한자의 뜻을 나타낸다.

실례로 한자 看은 상형한자 手와 目的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 한자의 모양을 보면 손을 눈우에 얹고 본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보다》라는 뜻이 이 한자의 본의로 된다. 이것이 본의라는것은 단어 看板, 看護에 쓰인 한자 看이 《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한자 孫은 상형한자들인 子와 系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 한자의 모양을 보면 아들의 뒤를 이은 자식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손자》라는 뜻이 이 한자의 본의로 된다. 이것이 본의라는것은 孫子, 孫女에 쓰인 한자 孫이 《손자》라는 뜻을 나타내는것을 통해서도 실증하여준다.

표음성분을 가지고있는 형성한자도 한자의 본의를 해석하는데 일정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볼수 있다.

형성한자는 형부(形部)와 성부(聲部)로 이루어졌다.

성부는 형성한자의 표음성분으로 되며 형부 즉 의부는 형성한자의 뜻을 나타낸다. 그렇다고 하여 의부가 곧 한자의 본의로 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자의 본의와 의부인 부수는 의미적으로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의부를 통하여 본의를 추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형성한자들가운데는 회의와 형성을 다같이 나타내는 한자들도 있다.

실례로 한자 城자는 土자와 成자의 결

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부인 成은 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루다, 만들다》는 뜻을 나타낸다. 土는 흙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城자는 마을을 빙 둘러친 흙으로 쌓은 담장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 뜻이 바로 城의 본의이다. 이 뜻이 전의되어 《성》으로 되었다.

한자 網자는 絲자와 罔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부인 罔자는 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물》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한자 網자는 《실로 짠 그물》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그물》이 이 한자의 본의로 된다.

이외에도 회의와 형성의 모양을 다같이 나타내는 형성한자들이 적지 않다.

형성한자들가운데는 상형이나 형성의 모양을 다같이 나타내는 형성한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한자 역시 본의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그러나 한자의 글자모양에 대한 분석만을 통해서 모든 한자의 본의를 다 밝혀낼수 없으며 단어가 가지는 뜻의 측면에서도 원래의 본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자들도 있는것으로 하여 글자모양에 대한 분석이 본의를 밝히는 완전한 방법이라고는 볼수 없다.

한자의 본의를 밝히는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사전에 올라있는 올림자의 첫번째 뜻을 참고하는것이다. 그것은 올림자의 첫번째 뜻과 한자의 글자형태가 나타내는 뜻이 기본적으로 일치하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자의 글자형태가 나타내는 뜻과 실지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한자의 뜻이 서로 부합되기때문이다.

또한 파생의는 본의로부터 갈라져나온 뜻이다.

파생의는 바로 한자의 다의성을 조성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본의로부터 갈라져나온 파생의는 본의와 어떤 련관속에서 파생되는가에 따라

직접파생의와 간접파생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직접파생의란 본의로부터 직접 파생되어 나온 뜻이며 간접파생의는 직접파생의에서 다시 파생되어 나온 뜻이다.

실례로 한자 月은 달이 이그리진 모양을 형상한 상형한자로서 《달》이 본의로 된다. 사람들은 달이 지구를 도는 과정에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며 둥글어졌다가 이지러지는 주기적인 현상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음력 초하루부터 음력 그믐날까지를 한달로 정하였다. 이로부터 한자 月자에는 《달》이라는 본의로부터 시간을 나타내는 《한달》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한달》의 의미가 바로 직접파생의이다.

문장에 쓰인 한자 月자를 놓고보아도 《暗冷者地月也》의 문장에서 한자 月자는 《달》의 의미를, 《生未經月》의 문장에서 한자 月자는 《한달》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한자 日은 둥근 태양의 모양을 형상한 상형한자로서 《해, 태양》이 본의로 된다.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자전하는 과정에 지구가 한바퀴 도는 시간을 하루로 정하였다. 이로부터 한자 日자에는 《태양》이라는 본의와 함께 시간을 나타내는 《하루, 날》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날》의 의미가 바로 직접파생의이다. 《하루, 날》은 또 다시 낮과 밤으로 갈라진다고 하여 《낮》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낮》의 의미는 간접파생의로 된다.

문장에 쓰인 한자 日을 놓고보아도 《明溫者日界也》의 문장에서 한자 日은 《해》의 의미를, 《七日雲霧自散》의 문장에서 한자 日은 《날》의 의미를, 《兩班日夜泣》의 문장에서 한자 日은 《낮》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한자의 파생의는 본의로부터 파생되는 직접파생의와 직접파생의에서 다시 파생되는 간접파생의로 갈라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자에서 파생의의 파생방법을 밝히기로 한다.

파생의가 파생되어 나온것을 분석하여 보면 맹목적으로 무질서하게 파생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는것을 알 수 있다.

파생의의 파생방법을 보면 구체적인 뜻에서 추상적인 뜻으로, 개별적인 뜻에서 일반적인 뜻으로 파생되는 규칙이 작용한다.

우선 구체적인 뜻에서 추상적인 뜻으로 파생된다.

실례로 한자 網의 본의는 짐승사냥이나 물고기잡이를 하는데 쓰는 끈을 꼬아서 만든 도구 즉 《그물》이라는 뜻이다. 본의로부터 《포함시키다》는 뜻이 파생되어 나왔으며 《포함시키다》라는 직접파생의로부터 다시 《조직, 망》이라는 간접파생의가 나왔다. 이러한 직접 및 간접파생의는 《그물》이라는 구체적인 뜻으로부터 《조직, 망》이라는 추상적인 뜻으로 파생되었다.

한자 貧(가난 빈)의 본의는 《가난하다》이다. 여기서 다시 파생되어 《적다, 부족하다》는 파생의가 나왔다. 이러한 파생의 역시 구체적인 뜻에서부터 추상적인 뜻으로 파생된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뜻에서 일반적인 뜻으로 파생된다.

실례로 한자 市の 본의는 《매매하는 곳》이다. 이로부터 파생되어 《성시, 도시》라는 뜻이 나왔다. 이 파생의는 개별적인 뜻에서 일반적인 뜻으로 파생된것이다.

한자 特의 본의는 숫소(公牛也)이다. 이로부터 파생되어 짝(匹也)이라는 뜻이 나왔으며 여기서 다시 파생되어 《특출한것, 특출한 대상》이라는 뜻이 나왔다. 이 파생의 역시 개별적인 뜻에서 일반적인 뜻으로 파생된것이다.

다음으로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에 대한 이해에서 몇가지 류의하여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밝히기로 한다.

우선 한자들가운데는 본의가 무엇이고 어떤 뜻이 파생되어 나왔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파생되어 나왔는가 하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것이 있는데 이러한 한자를 류의 하여야 한다.

실례로 한자 該에는 ① 갖추다, ② 다, ③ 군호, ④ 그 라는 뜻이 있는데 《군호》와 《그》 뜻의 파생방법은 명백하지 않다.

또한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는 성조에 의하여 표현되거나 달라지는것만큼 성조변화에 류의해야 한다.

실례로 한자 王은 평성인 경우에는 ① 임금, ② 크다, ③ 성의 뜻을 나타내며 거성인 경우에는 ① 가다, ② 왕노릇하다, 군림하다, ③ 왕성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한자 騎는 평성인 경우에 《말을 타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거성인 경우에 《기별》의 뜻을 나타낸다.

한자 副는 상성인 경우에는 음이 《부》이며 뜻은 ① 버금, 다음, ② 맞다, ③ 머리꾸미개이며 입성인 경우에는 음이 《복》이며 뜻은 ① 쪼개다, ② 찢다 이다.

또한 한자의 모양변화에도 류의해야 한다.

한자의 모양변화는 두 측면에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 는 한자의 본의를 나타내는 글자모양이 변한것이다.

실례로 한자 何의 본의는 《메다, 지다》이다. 《시경》에 있는 何衰何筮의 문장에

쓰인 何는 《메다, 지다》의 뜻으로 쓰이었다. 후에 《어찌 하》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사로 리용하면서 따로 荷자를 만들어 《메다, 지다》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것으로 한자 何는 자기의 본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자 須의 본의는 《턱수염》이다. 《주역》에 있는 《賁其須》의 문장에 쓰인 須는 《턱수염》의 뜻으로 쓰이었다. 후에 《모름지기》, 《마땅히》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리용하면서 따로 鬚자를 만들어 《턱수염》의 뜻을 나타내게 하였다.

이것으로 한자 須는 자기의 본의를 상실하였다.

다른 하나는 한자의 본의를 나타내는 자형이 변한것이다.

실례로 단어 懈怠의 한자 懈는 원래 解자의 파생의 《해이되다》에서 파생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解자와 구별한다고 하면서 懈자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단어 豎立의 한자 豎는 원래 樹자의 파생의 《세우다》에서 파생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樹자와 구별한다고 하면서 豎자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에 대한 관계를 밝히는데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한자의 본의와 파생의에 대한 문제를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파악하자면 그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나가야 한다.